

언어생활에서 다의적인 어휘표현의 리용

류 선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말뒤에 말이 있다. 말뒤에 큰뜻을 담을 줄 아는 재능은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간결하게 나타낼 줄 아는 작가들에게서만 볼수 있다.》(《김정일선집》 제5권 중보판 121페이지)

언어생활을 진행해나가는데서 한두마디의 말로 여러가지 깊고 다양한 뜻을 표현하는것은 언어생활을 풍만하게 하고 사람들사이에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나누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적극 활용되고있으며 언어생활을 다양하고 풍만하게 하여주고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다의적인 어휘표현들이 리용되고있는 정형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있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언어생활에서 보통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언어생활에서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일상생활과 각이한 사회생활분야에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사용된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널리 리용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오해선을 조성하는데서 다의적표현이 널리 리용되고있다.

실례로 《새끼오리》라든지 《시어머니》 등의 표현들을 들수 있다.

어느 한 작품에서는 인민군대를 원호하려고 하는 농장원들사이의 승벽심을 보여주는데 동음이의어 《새끼오리》를 리용하였다. 한 농장원은 짐승으로서의 《새끼오리》를 녀두에 두었지만 작업반장이 곤으로서의 《새끼오리》를 생각하며 욕신각신하다보

니 작품의 기본사건선을 끌고나가면서도 사람들에게 가벼운 웃음과 랑만을 주고 작품이 주장하는 군민일치사상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안겨주게 되였다.

어느 한 작품에서는 인민군대에 나가는 손자에게 《시 〈어머니〉》를 함께 보내라는 할머니의 당부를 잘못 리해하여 시작품으로서의 《시 〈어머니〉》가 아니라 친척관계로서의 《시어머니》를 함께 따라보내라는것으로 알고 오해선이 전개된다. 이 과정에 작품에서 주자고 하는 당의 위대성, 조국의 귀중함 등을 심각한 정극속에서가 아니라 배가 끊어질듯 한 웃음속에 다시금 인식할수 있게 하였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문학작품에서 독자들의 사색을 불러일으키고 여운을 남기게 하며 형상성을 높여준다.

글을 쓰는 사람은 흔히 심오한 사상적 내용을 표현하거나 복잡한 심리상태를 묘사할 때 단의적인 어휘표현보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문학예술작품은 일반적인 설명문과 달라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인차 리해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지 않고 독자자체가 분석리해하도록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사용하여 사색의 여지를 남겨준다.

문학작품에서 작가는 자기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다의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글의 참뜻을 리해하기 위해 사색을 반복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만일 이와 반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직접 단의적으로 표현한다면 문학예술작품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말것이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단의적인 표현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감을 준다. 실례

로 일상생활에서 손님을 배례할 때 《언제 또 놀러오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날 아무시에 놀러오십시오.》라는것보다 시간이라는 양적특성값이 다의적이지만 생활 언어로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감을 준다.

문학적인 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단의적인 어휘표현만을 사용하면 글이 메마르고 딱딱하지만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적당히 사용하면 보다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

례: 벌써 몇십번도 더 되풀이해 읽고 어떤 대목에는 자기의 눈물얼룩까지 남아있는 낯익은 책장을 다시금 번져본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

우의 실례에서 《어떤 대목》이라는 표현은 다의적인 어휘표현으로 되고있다. 여기에서는 책을 읽는 독자의 심리적상태를 나타내는것이 기본으로 되고있는것만큼 그것을 느끼게 하는 전반내용을 다 전개하지 않고있다. 만일 책의 몇페이지, 몇페이지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문학작품의 글이라기보다 과학문헌과 같은 글로 되어 버릴것이다.

문학작품의 경우 이렇게 다의적인 어휘표현들을 적극 리용함으로써 딱딱하고 메마른 표현이 아니라 감정정서적이고 풍부한 느낌을 주는 문학작품의 언어를 만들어 내게 된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언어교제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데 리용된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떠나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생각할수 없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에서 많이 사용된다.

실례로 《그새 안녕하셨습니다까?》, 《참, 오래간만입니다. 》, 《그새 더 젊어진것 같습니다. 》,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 등은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면서도 다의적인 성질이 강한 표현들이다.

《그새 안녕하셨습니다까?》라는 인사말에

서 《그새》라는 표현은 정확히 한달인지 아니면 일년동안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각이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의적인 어휘표현으로 된다. 《오래간만입니다.》라는 인사말에서 《오래간만》이라는 어휘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상생활에서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우리 집에 들려주십시오.》라는 인사말은 순수 인사적인 말로 볼수도 있고 또한 주인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언제 자기 집에 오는가 하는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것으로 리해할수 있다. 이 인사말에서 《언제 한번》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다의적인 성질을 가지는 다의적인 어휘표현으로 된다. 래일이나 며칠후도 될수 있고 오지 않아도 문제로 되지 않는 어휘표현으로 된다.

이러한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사용하면 사람들사이의 교제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사이의 관계도 여유를 가지고 유지할수 있다.

사람들은 다의적인 어휘표현으로 자기의 생각을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퇴근시간에 어디론가 가는 동무와 진행하는 대화 가운데서 《어디 가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 어디 좀...》이라고 간단하고 다의적으로 대답한 경우 물어보는 사람도 정확히 단의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적당하고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며 더우기는 물어본 사람의 의도도 그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우리 말에서는 웃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자기의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에 단의적임에도 불구하고 명령, 권유,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

식 또는 명확하고 결론적인 표현 등을 될수록 피하고 추측, 의문, 가능 등의 형식으로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사용해야 보다 레절바르고 겸손함을 나타낸다.

례 : ① 같이 갑시다.

②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③ 같이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④ 같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의 몇가지 형식들을 비교하여보면 일반적으로 ①, ②형식보다 ③, ④의 형식이 더 겸손하고 레절바름을 느끼게 된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언어생활에서 중점을 내세우고 간결성을 보장한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일반적으로 단의적인 어휘표현보다 의미내용의 폭이 아주 넓다. 따라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부차적인 내용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다의적인 어휘표현으로 개괄하여 표현한다면 중점을 보다 뚜렷하게 살리고 간결성을 보장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이야기상대방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주의력을 집중시킨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나타내려는 내용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것만큼 쉽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주의력을 집중시킨다. 그러므로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글의 제목이라든가 내용전개과정에 적지 않게 사용되고있다.

례: 《죄아닌 죄》

《누구의 탓으로...》

위의 표현들은 이것일수도 있고 저것일수도 있는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리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보지 않으면 안되게 호기

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렇게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사람들의 인식활동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의적인 어휘표현은 이와 함께 신중성을 나타낸다.

객관적사물에 대한 인간의 정확한 인식은 오랜 력사적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것은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하여 완전무결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거나 어떤 학술적주장을 내세우는데서 흔히 다의적인 어휘표현을 사용하여 일정한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정확하고 명확한 단의적인 어휘표현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신중함을 나타낸다.

학술논문에서는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여》, 《대체적으로 보아》, 《...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등의 형식들이 많이 쓰이고있다.

과학논문이나 학술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도서들에서와 같이 완전히 확정된 사실이 아닌 조건이라든지 미해명문제이지만 가설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할수 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라는것은 사실인것 같다.》 등의 다의적인 성질을 가지는 어휘표현들이 사용되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필자의 립장과 과학을 대하는 일정한 여유적인 태도, 신중함을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다의적인 어휘표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언어발전과 사람들사이의 언어교제, 자연언어의 컴퓨터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언어실천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